

내가 나라는 게 없는 공부야 바로 진짜입니다

25면에서 계속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몸뚱이는 누가 끌고 다니니까? 여러분이 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몸뚱이를 지금 끌고 다니는 겁니다. 선장이 배에다가 지금 자기 증생들을, 자기 부처가 자기 증생들을 배에다 싣고, 지금 여러분도 배에다 싣고 지금 오셨습니다. 오고 간 사이 없이 맵습니다. 이런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나씩 움직여진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몸 안에서 어떤 병이 났는지 가난하든지 일이 안되든지 그 모든 일체를 막론하고 내가 여기에서 (가슴을 짚어 보십시오) 한생각으로 주인공을 잡았을 때,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우선적으로 자기 참주인공을 들고 나갈 때에,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나갈 때에,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잘 이끌어 나갈 때 이 몸뚱이에 어떠한 병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라는 놈도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도 잘 생각하니까 자기가 죽겠

기보다 진리이지만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과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좋은 법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남을 알지 못하는니라. 병 자체뿐이 아니라 병으로 꼬집어 비유를 들어 말했지만, 일체 만법이 다 거기에서 나오고 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어찌서 공덕이 없다는 건지, 왜 양 무제더러 달마 대사가 그렇게 말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저 뒤에 계신 부처님, 여러분은 자꾸 내가 이렇게 심년, 이십년, 큰 삼십년 가까이 여러분을 접해 오니까, '아하! 이래서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셔놓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마디 한다면 처음에는 '그거는 형상이니까' 이라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들로 보지 말라는 얘깁니다. 여기서 (가슴을 가리키시며) 부처님을 볼 때는 부처님과 자기와 둘이 아니에요. 자기가 여기 있기 때문이예요. 타의에서 어떠한 상대를 만났을 때도 둘이 아니죠. 그러

나도 독성한테다, 산신한테다 뉘야 돼. 명이 짧다니가 칠성 찾고, 좋은 데로 가려고 또 지장 찾지, 병이 났으니까 약사 찾아야지? 또 요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방생(放生) 가재요, 방생! 방생이 도무지 뭐냐 이겁니다. 방생이, 예전에 저도 산에서 있어 봤지만 비가 오면 물이 올라 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정맥 동맥이 오르고 내리고 하듯이 합니다. 물이 올라갔다 그 때 떨어질 때에 그때 미꾸라지나 자라니 뭐 아니 떨어지는 게 없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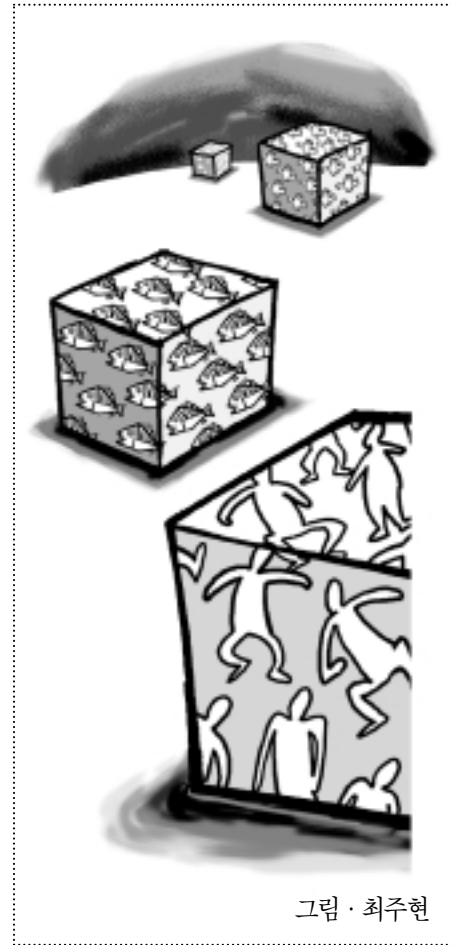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저보십시오. 그걸 한번, 이 꽃송이 생명도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보신다면 그게 다 나옵니다. 연구 해본다면, 그 고기들은 진흙에서 사는 게 있고 모래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고기도 있고, 남생이도 자기가 살던 고장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 고기들에게 물이면 다 같은 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시아라 믿습니다. 제 집을 찾아가는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들 그러다가 지쳐서 삼분의 이는 죽어요, 넣어도. 또 집을 때 죽고, 잡아다 갖다 봤을 때 죽고, 가져갔을 때 죽고, 넣었을 때 죽고 그럼 뭐 남는 게 있어서 방생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놀부짓 하고도 그것이 흥부 방생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여러분이 가정에 살면서 남편과 자녀들과 재밌게 살면서도 때로는 아침 새벽이면, 도대체 자기 있는 데가 부처님 자리인 것을 가지고, 또 생활이 그냥 부처님 법이거늘 어찌 그저 앉아서, 참선한다고 앉았고 또 염불한다고 앉았고 절을 삼천백 배팔배 한다고 하고, 또 때로는 뭐 비린 것도 안 먹고 누린 것도 안 먹고 목

친구의 행동까지도 해줘야만 다복하고 융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포근한 살림이요 포근한 살림이요 생동력 있는 살림이요 의지력 있는 살림이요 진실한 살림이요 맵습니다. 이것저것 빼놓고 불법이 어딴 겁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불법이라는 것도 없는데요. 제가 차근차근히 얘기는 못 해드려도 알아들으시겠죠. 합니다. 저는 뭐 체계도 없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듣는 분들이 체계 있게 잘 들으세요. 이걸 듣기에 달린 겁니다. 한 마디에 열 마디가 거기 포함했다는 걸 아시고, 한 마디 한 마디에 열 마디가 거기 다 달려서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무로 표현을 한다면, 무맛은 한 맛입니다. 그런데 거기 깎두기를 만들어 놓으면, 양념을 했기 때문에 깎두기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무라고 안 그러니까. 그럼 이 깎두기 한 가지 가지도 칩을 들 겁니까? 무는 숯장아찌도 하고 장아찌도 하고 채장아찌도 하고 깎두기도 하고 김치속도 넣고 무국도 끓이고 그러는 걸 안다면, 이 깎두기 하나 가지도 칩을 두지 않으시겠죠. 지금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부처님 이름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남 볼 겨를이 없습니다

거든. 전자에 들로 볼 때는 '내가 너를 이렇게 하면은 과욕을 일으키지.' 하는데, 하나로 볼 때는 '아하! 이거 과욕을 일으키면 내 가정이 다 없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선 과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제하고 믿기 때문에 걱정이 하나도 없죠. 어디 옆구리가 추셔? '어허, 신호가 왔구나. 내가 끌고 다니는 네 시자를 내가 고쳐! 고쳐가서 끌고 다니! 나는 알 바 없다. 너 알아서 해라!' 이러거든. 자기가 형성시킨 것 자기가 끌고 다녀야지 누가 끌고 다니느냐 이거야. 수억 겁 광년을 거쳐오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지수화풍으로 통쳐서 이날까지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주인이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참자기인 것입니다. 수없이 겁을 거쳐오면서, 모습을 바꿔가면서 진화해가면서 나온 그 역사를 볼 때에는 정말이지 보배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너무 아프고 좋고 즐겁고 이런 것을 수차례 걸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뜻이란 말로 형용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보배인 것입니다. 그 보배가 그렇게 능동력 있게 생동력 있게 과학적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면 바깥으로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여러분이 배고프다 하는 생각을 했다면 바로 밥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과학이 아니라고요? 인정이 안된다고요? 똥이 마려우면 얼른 가서 똥을 누면서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왜 인정을 안 합니까?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이 뜻이, 팔만 사천 법문이 다, 이것은 과학이

니까 나뉜다는 말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하면 법신(法身)이고 움직여가면 화신(化身)이예요. 물리가 터진다면 보신(報身)이고, 문수보살도 있고, 보현보살도 있거든요. 자기한테 모든 게 있는 거라. 그러다보면 산신(山神)이 따로 없고, 신중단(神衆團)이 따로 없고, 용왕(龍王)이 따로 없고, 지신(地神)이 따로 없고, 약사(藥師)가 따로 없고, 칠성(七星)이 따로 없고 모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나뉘면서 찰나찰나 칠성이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법신이 될 수도 있고 약사가 될 수도 있죠.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광대무변한 보배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활용 못합니다. 이 도리를 가르칠 때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 도리를 알아서 잘 살라고 그랬지 방황하려고 가르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사랑하고 자녀들을 돌볼 때 돌보고 애정을 느끼되 작은 두지 말고 찰나찰나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끊임없는 그 날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어긋나고 걸림 없이 우리가 해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기 놓으면은 요기서 걱정이고, '우리 남편이 병이 짧는데, 어디 가보니까, 칠성에다 놓지 않으면 이거 큰 걱정이야. 그러니까 요기다가 뉘야 하고 또 어디 가서 보니까 독성(獨聖)에다 놓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게 돼.' 그러니까

니다. 봉어도 그렇고, 그렇게 마당에 죽 떨어져서 필필 합니다. 그때에 그릇에다가 그걸 주워담아서 물에다 갖다 넣어주는 거를 방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것이 방생이 됐느냐 하면은, 산 거를 잡아왔다가 여러분이 다시 강에다 갖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방생입니까? 놀부 잘 아시죠? 그전에도 그런 말은 했지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살피는 데 괴로움이 많겠습니까? 예전에 8·15 해방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죠. 탄광으로 끌려가고 뭐로 끌려가고 그랬다가 8·15 해방 되니까 딱 놔줬어요. 사람들이 전부 이리저리 자기네 집 찾아가는다고 애를 쓰다가 죽은 사람이 삼분의 이는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형상이지. 여러분이 남의 생명도 아끼는 마음을 한번 가

오직 안으로만 다시 굴러서 놓아야 합니다!

육재계하고, 애가 어떻게 되든 남편이 어떻게 되든 그냥 기도하러 간단 말입니다. 불교 신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 알도 못 가리는 사람들이 무엇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하나 정돈하면서 하나가는 대로 그러한... 그대 어떠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어쩌다가 방에 들었더니, 벌이 말입니다. 반사된 창문을 문인 줄 알고, 입으로 쪼다보니 몸 떨어지고 입도 떨어지고 입 떨어지니 말도 떨어지더라. 여러분이 아무리 열물을 하고 경을 읽고 온통 야단을 해도, 몸으로써 말로써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첫째 이득이 없거니와 둘째, 남편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데 아침에 떠나실들이 좀 재밌게 좀 따뜻하게 해줘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년 시간 되면 이렇게 하겠지.' 밥이나 해놓으면 그대 그분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오고 가는 말 한마디에 천만 빛을 갚는다는 속담의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고맙고 외롭고 바깥에서 어떠한 속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아내가 슬기롭게 씩 해주는 데 사는 보람을 느끼고 마음 딱 놓고 나가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머슴이면서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식모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자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여자는 또 남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내의 행동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머니의 행동 해야 하고 또 아내의 행동 해야 하고, 나중엔 딸의 행동까지도, 동생의 행동까지도,

들을 죽 놓고 찾지 말라는 얘기도. 절할 때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한 번 착 들리려면 그냥 하나입니다. (주먹을 쥐어 보시면서) 하나를 딱 쥐고선 한 번 딱 절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거기 조상도 부처도 증생도 없이 평평입니다. 좀 간편하게 살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셨는데, 공부하다가 좀 어려운 것 같으면 '그분이 그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우리가 편안할 걸 그랬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그럼, 먹어보지도 않고? 하하, 아니 맛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단군이나, 또는 석존이 그렇게 가르쳤고 사대 성인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름으로 삼아서 생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하셨습니까? 우리가 또 제일 무시하지 못할 것은, 자기 몸뚱이가 허무하다는 겁니다. 지수화풍이, 근본적으로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모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화풍이 허무하다, 물질들은 전부 허무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무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문은 1988년 12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통따주가지도사 강좌 (2박3일) 안내

- 1.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 2.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키고, 나쁜 피는 사혈합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약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 3.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가지도사로 활동
-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미음과 육신
- 5.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접강의)
- 6. 강 좌 일**
 - 2007년 1월 20일 (토) ~ 1월 21일 (일)
- 7. 특전**
 - 18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교재 · 시혈기 및 필수 부항 · 펌프 보시
- 8. 강좌문의 054)637-3477**
(주소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

고차원세계의 과학 - 그리고 레이키 -

- 1.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박희준 회장이 새로이 개설한 홈페이지「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혹은 「www.spiritualism.co.kr」의 회원이 되시면 고차원세계의 실상을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접근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의 참 모습을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회원이 되십시오. 앞으로 계속 기사를 실을 것입니다.
- 2. 동서양식 레이키**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5만원
단체교육은 매월 1회 토,일요일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개인교육은 날짜와 시간을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키는 에너지 요법 즉 기치치료법의 총아입니다. 레이키는 교육만 받으면 그날부터 능력자가 될 수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저(박희준)는 1997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레이키 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 3. 카루나 레이키**
교육비 30만원, 교육기간 1일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음파 에너지를 환부에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4. 박희준 회장 약력**
20여년간 건강분야, 불교분야, 정신세계분야의 저술가, 번역가 로 활동하여 10여권의 저서와 1백여권의 번역서를 냈습니다. Spiritualism, 운회전생, 초능력 문제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던 끝에 그 자료들을 인터넷에 공개 해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www.spiritualism.co.kr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신수 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편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역학 개인지도 - 수시접수

효타 암주지원공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